

실적 키우고, 신뢰 쌓고, ESG 앞세워… 미래 경쟁력 강화

금융의 미래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스마트폰을 앞세운 모바일혁명의 ‘대전환’이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인공지능(AI) 회사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와 이세돌 바둑9단의 바둑대결을 계기로 AI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후 전 세계는 AI의 발달에 힘입어 디지털 전환(DX)의 바람이 기업을 중심으로 거세게 불기 시작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바이오산업의 중요성과 함께 사회 전반에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대전환시대’의 도래입니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이 같은 대전환기를 맞아 ‘생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대한민국 전환기의 핵심동력인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집중 조명합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올해 비전은 ‘내부통제 기능을 확립하고, 고객에게 더 쉽고 빠르게 금융을 전하는 것’이다. 지난해 금융사고가 반복된 부분과 관련해 내부통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금융인으로서 보유한 전문지식과 새로운 기술로 고객에게 더 쉽고 빠르게 금융을 알리겠다는 의미다.

11일 애플케어 가이드에 따르면 신한금융의 올해 말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5조5000원으로 예상됐다. 3분기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1조3514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19% 증가하며 올해 당기순이익을 이끈다는 분석이다.

신한금융은 2분기 순이익이 1억5491억원 증가해 상반기 순이익은 3조374억원에 달했다. 3분기까지 하면 누적 당기순이익이 4조3888억원이 예상된다.

신한금융의 순이익이 증가하는 이유는 신한금융의 포트폴리오가 은행 중심에서 비은행으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신한금융의 2분기 경영 실적을 보면 비이자부문 이익은 1분기 9393억원에서 2분기 1조22650억원으로 3257억원

(34.7%) 증가했다. 은행을 포함한 이자이익이 같은 기간 2조8549억원에서 2조8640억원으로 0.3%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확대됐다.

5조 순익 눈앞, 비은행 성장 견인
이자익 정체 속 비이자익 급증
신한투자증권 성과 두각 드러나
다변화 전략으로 성장 기반 확보
CFO “전 부문 실적 개선” 자신감

전상영 재무담당최고책임자(CFO)는 2분기 실적 발표회에서 “그룹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대손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비이자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전 분기 대비 모든 영역에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 믿고 맡기는 신한… AI 인재 양성

비이자부문의 실적개선을 이끌었던 신한투자증권은 디지털 금융 서비스 역

량을 강화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신규 고객 유치에 통해 재무적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 디지털 아카데미를 통해 금융 디지털 인재 양성도 지원하고 있다.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브랜드를 ‘신한 알파 3.0’에서 ‘신한 SOL 증권’으로 새로 단장하며, 고객이 직관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한카드는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과 통제 및 감사부서에서 맡은 바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는 삼선 방어체계를 기반으로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신한라이프는 2001년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 이후 만들어진 곳으로 보험금 지급 업무 부정적,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 누락, 전산시스템 통제 실패 등 7개 분야 법규 위반을 이유로 총 1억38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

과한 바 있다. 신한라이프는 내부통제 한 팀(One Team) 구동 체계를 강화하고,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 실천하고 있다.

◆ 지속 가능 경영은 ‘환경보호’부터

신한금융은 내부통제와 같은 무게로 환경개선에도 진심이다. 진옥동 회장은 신한금융의 지속가능경영 전략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탄소중립을 강조하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 카본 드라이브 선언을 했다.

현재 신한금융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친환경 금융지원 확대와 임직원의 실천을 독려하고 있다. 온실가스배출량 총량은 2022년 2만3672tCO₂eq→ 2023년 7만2913tCO₂eq→ 2024년 7만718tCO₂eq로 줄었다.

일반폐기물과 재활용을 더한 폐기물 총 배출량도 2022년 460.4톤→ 2023년 404.2톤→ 2024년 276톤으로 줄었다. 2022년과 비교해 200톤가량 줄어든 셈이다.

상생 포용금융도 강화하고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은 2022년 3억원 2023 3억2000억원 2024년 3억4000억원으로 늘었다. 추석을 맞아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약 15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내부통제 강화로 경영 안정 도모
신뢰 회복 위한 삼선 방어 강화
2050 탄소중립, 감축 성과 가시
15조 지원 등 상생 금융 확대
“ESG는 선언 아닌 실행” 강조

금융지원은 우선 업체당 필요자금 범위 내에서 10억원까지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원금 일부 상환 조건 없는 만기 연장과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지원방안에 포함됐다. 총지원 액수는 15조1250억원 가량이다.

진 회장은 “ESG는 선언보다 실행이 중요하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모여 지속가능성을 만든다”며 “앞으로도 ‘멋진 세상을 위한 올바른 실천’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진옥동(가운데)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신한금융 직원들이 ‘온기나눔’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증권 디지털 화를 통한 모바일 고객경험 개선.
/신한증권 지속경영보고서